

서원리·書院里

## 서원리·書院里

서원리는 엽티읍의 한 마을로서 서원 1리와 2리로 구분되며, 서원1리는 서원골 또는 선골로 서원리의 주된 마을이며, 인산서원이 있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서원 2리는 원골라는 마을로 서원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며 이조때 불장원이 있었다하며 이곳에 수정이 나왔다고 한다. 인구수는 총 711명으로 남자 380명, 여자 331명으로 호구수는 248호이며, 농사를 짓고 있다. 서원리는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아산군 삼서면의 와천리를 병합하여 서원리라 하여 아산군 엽티읍에 편입되었다.

< 서원리 위치도 >



### ☒ 서원골, 원골마을 (서원리)

서원1리는 서원골 또는 선골 마을과 기와내 마을로 나뉘어 지며 서원골 마을은 서원리의 주된 마을로 인산서원이 있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기와내 마을은 서원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기와점이 있었다 한다. 기원골과 강청리의 속샘말 사이 큰 길 동쪽에 있는 기와점터가 있는데 옛날 이곳에서 기와를 구워내 현재도 기와 조각이 많이 발견된다.

서원2리는 원골이라고 하며 원골은 서원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이조때에는 불장원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수정이 나왔다고 한다.

<조사당시 서원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서원골 마을은 염치읍에서 6번 국도를 따라 공세리 쪽으로 가다 보면 102번 도로 갈림길에서 북쪽으로 기와내 마을과 원골 마을의 1/3지점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원골 마을은 위도 36-49-20, 경도 126-57-00의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염치읍에서 6번 국도를 따라 공세리쪽으로 가다 보면 102번 도로 왼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2) 현황

서원골은 총 인구 203명으로 남자 99명, 여자 104명으로 호구수는 69호가 되며, 농업이 73%이고, 축산업 16%, 서서비스업 11%로 종사하고 있다.

원골 마을은 총 인구 179 명으로 남자 281명, 여자 227명으로 호구수는 179호로 농업이 37%, 축산업 2%, 서비스업이 61%로 농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인구 분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서원골 마을	203명	99명	104명
원골 마을	508명	281명	227명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축 산 업	기타서비스업
서원골 마을	100%	73%	16%	11%

원골 마을	100%	37%	2%	61%
-------	------	-----	----	-----

서원골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 21ha, 밭 26ha로 조사 되었으며, 농기계 현황은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양수기, 병충해 방제기, 이앙기, 관리기, 절단기, 예취기, 건조기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원골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 12ha, 밭 22.5ha로 조사 되었으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양수기, 병충해 방제기, 이앙기, 관리기, 절단기, 예취기, 건조기 등이 있으며, 문화 시설로는 앰프시설이 갖추어진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서원골 마을	47ha	21ha	26ha
원골 마을	34.5ha	12ha	22.5ha

-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서원골 마을	1개소	1개소	-
원골 마을	1개소	1개소	-

서원골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 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씨 10%, 강씨 4%, 이씨 2%, 기타 성씨는 72%나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층은 50~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원골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 21%, 박씨 8%, 이씨 11%, 최씨 15%로 조사 되었으며, 연령층은 20~60대까지 골고루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곳은 고려화학 사원 아파트가 있어 젊은층이 많고 초등학교도 아주 많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김씨	박씨	이씨	최씨	강씨	기타성씨
서원골마을	69호	8호	7호	1호	-	3호	50호
원골마을	179호	37호	15호	19호	12호	5호	91호

- 최고령자

서원골에 최고령자는 김옥순씨로 나이 92세이다. 원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박경희씨로 올해 82살이다.

3) 자연경관

서원골 마을에 들어서면 산에 둘러 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 도로가 나 있으며, 도로 앞쪽으로 원골에서 발원하는 기와내가 흘러가고 그 주변에 논이 있다.

원골마을은 마을 뒤쪽으로 산골짜기가 있고, 마을을 거쳐 흘러가는 기와내 앞쪽으로 논이 있으며, 논 앞으로는 도로가 나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서원리는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아산군 삼서면의 와천리를 병합하여 서원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으로 편입되었다.

5) 입 향

서원골은 함양박씨의 16대손 길상이 낙향했을 때 이미 함양 홍씨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을

보아 서기 1500년경 약 500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골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850년경 약 150년으로 추측이 가능하며 원골 마을에는 처음에 두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중 한 집이 박씨 성을 갖은 사람이었다고 하며, 이 마을에 3대째 살고 있다.

#### 6) 지 명

##### 十 서원골 마을의 지명

- 서원골 (선골) : 서원리의 주된 마을로 인산서원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
- 기와내 : 원골에서 발원하여 기와내 마을을 거쳐 곡교천으로 들어가는 내
- 와내 (기와내) : 서원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기와점이 있었음.
- 서원교 : 서원리에 있는 다리
- 인산서원터 : 서원골에 있는 인산서원의 터. 광해 2년 (1610년)에 서원을 세우고, 영인산의 이름을 따서 인산서원이라 하여, 한훤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덕양 기준, 토정 이지함, 만전 홍가신, 송파 이덕민, 잠야 박지계를 배양하였는데 고종 5년 (1868년)에 헐림.
- 기와점터 : 기와내와 강청리의 속셈 말 사이 큰 동쪽에 있는 기와점의 터로 옛날 이곳에서 기와를 구워냈는데, 현재 기와 조각이 많이 있으며, 집 한채가 있음.

·동막골 : 기와내 뒤에 있는 골짜기

##### 十 원골마을의 지명

- 원골 : 서원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이조때 불장원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수정이 나왔다 함.
- 성낭당 고개 : 기와내에서 강청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성황당이 있음.
- 어금니 바위 (애기 엷은 바위) : 원골 뒷산에 있는 바위 .그 형상이 아기 엷은 형상이기도 하고 또는 흰 어금니와 흡사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아산군의 이름이 이것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함.

#### 7) 전 설

##### 十 서원제에 관한 전설 (서원골 마을)

조선중기 당파싸움이 한창일 때 노론의 한 사람이었던 함양 박씨인 지상은 고향인 서원리로 낙향하여 이미 자리잡고 있던 함양 홍씨의 편서의 일가와 뜻을 같이하여 의논 끝에 세운 서원이 인산서원이다. 정조때 국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으나 정계에서 밀려나 다시 서원리로 돌아와서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그곳을 서원제라 한다. 규모가 무척이나 작았던 그곳은 6·25때 파손 그 자리만 남아 있었으며 그 후손이 보존하고 있다.

##### 十 어금리 바위의 전설

고려말 이곳에 돈 많고 부자인 욕심장이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많은 땅이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소작인들 또한 많았다. 노인에게는 칠삭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작인들 중 한 딸을 며느리로 맞으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었다. 가난한 농사꾼의 처녀이기는 하나, 아름답고, 현명하여 누구 못지 않게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었다. 노인은 몇번이나 청혼을 했지만, 승낙을 받아내지 못하자 소작할 땅을 주지 않겠노라고 엄포를 놓았다. 소작을 하여 겨우 생계를 이어 가는 이들 부부에게는 보통의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효성스런 그집의 딸은 스스로 혼인 하겠다고 나섰다. 부모는 펄쩍 뛰었지만, 외동딸의 가락한 마을을 저버리지 못했다.

혼인을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큰 흥년인데도 구두쇠 노인의 광에는 양식이 그득했고, 며느리는 동냥 온 이들에게 무언가를 몰래 주곤 하였다. 또한 남편을 설득시켜 학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아버지인 노인은 칠삭둥이인 아들이 무얼 하겠냐며 아들을 쫓아 버렸다. 그 후 며느리는 임신을 했고 노인의 심술은 날로 더욱 심해져만 갔다. 어느날 초라한 중이 시주를 하러 왔고, 며느리는 여느때처럼 몰래 쌀을 한 바가지 시주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쌀을 다시 빼앗고는 외양간의 쇠뿔을 가득 뒤집어 씌우고, 시주 그릇에 가득 담아 주었다. 거친 욕설을 퍼붓

던 노인이 들어가자, 중은 며느리에게 살며시 말했다. " 지금 집에서 멀리 가시오. 곧 재난이 닥칠터이니, 빨리 떠나시오. 단 가다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되오" 중은 의혹의 말을 남긴 채 떠나 버렸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빨리 떠나자고 하자 노인은 한사코 거절하며 화를 냈다. 며느리는 아기를 업은 채 집을 나왔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여인은 돌아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너무 궁금하여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으리으리한 집, 넓고 기름진 문전옥답이 썩고, 큰 연못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그녀는 아기 업은 형상의 바위로 변했다. 남편이 성실한 일꾼이 되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였고 욕심많은 시아버지를 동정하고 효성스런 아내에 감복하였다 한다. 그 후 이 바위를 아기업은 바위, 혹은 어금니 바위라 하였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서원골 마을은 정월 대보름에 풍악, 율놀이,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노인 위안잔치를 하고 있으며, 대동계로서 매년 12월 말일에 마을 일을 서로 의논하면서 마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와내 마을은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정월 보름날에는 율놀이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청년회에 상조회가 있어 마을 어른이 상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있다.

####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인산서원에 배향 되었던 인물들중에서 몇 몇 분들을 이곳에 소개 하고자 한다.

##### 十 김굉필(金宏弼: 1454~1504 단종 2~연산군 10)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서흥(瑞興). 자는 대유(大猷), 호는 사옹(蓑翁)·한훤당(寒暄堂).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고, 1480년(성종 11)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94년 이극균(李克均)의 천거로 남부참봉에 제수되면서 관직생활이 시작되었다. 96년(연산군 2) 군자감주부에 제수되었으며 곧 사헌부감찰을 거쳐 이듬해에는 형조좌랑이 되었다. 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도로서 봉당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평안도 회천에 유배되었다가 2년 뒤 순천에 이배되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 연구와 후진교육에 힘썼으며 조광조(趙光祖)에게 학문을 전수하여 유학사의 정맥을 잇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무오당인이라는 죄목으로 극형에 처해졌다. 중종반정 뒤 사림파의 개혁정치가 추진되면서 성리학의 기반구축과 인재양성에 끼친 업적이 재평가되었는데, 이는 조광조를 비롯한 제자들의 정치적 성장에 힘입은 바 컸다. 그 결과 17년(중종 12) 정광필(鄭光弼)·신용개(申用溉) 등에 의하여 무고하게 피화되었음이 역설되어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77년(선조 10)에는 시호가 내려졌고, 1610년(광해군 2)에는 대간과 성균관 및 각 도 유생들의 상소에 의하여 정여창(鄭汝昌)·조광조·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등과 함께 오현(五賢)으로 문묘에 종사되었다. 학문적으로는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유학사의 정통을 계승하였다. 저서로는 《경현록》 《한훤당집》 등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

##### 十조광조(趙光祖 1482~1519 성종 13~중종 14)

조선 중기 문신·성리학자.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본관은 한양(漢陽).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김종직(金宗直)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士林派)의 영수(領袖)이다. 김굉필·정여창(鄭汝昌)·이황(李滉)과 함께 동방4현(東方四賢)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1510년(중종 5)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 들어가 학업에 전념하였다. 15년(중종 10) 학행으로 천거받아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에 초임되었고, 같은 해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전적·감찰·공조좌랑·홍문관부수찬·교리·응교 등을 역임하였다. 정언으로 재직중 박원종(朴元宗)·김안로(金安老) 등 반정(反正) 공신들이 주장한 왕비 신씨(愼氏) 폐출론에 반대하는 한편,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17년 정연시독관과 춘추관기주관을 겸임하면서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여씨향약(呂氏鄉約)의 실시를 주장, 8도에 걸쳐 실시하게 하였다. 18년 부제학으로 있을 당시 미신타과를 내세워 소격서(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청(奏請)하여,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해 11월 대사헌에 승진하고 현량과(賢良科)를 처음 실시하게 하여 김식(金湜) 등 소장학자들을 선발, 요직에 배치하였다. 이들 신진사류들은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舊制)의 개혁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박차를 가해 나갔다. 19년(중종 14) 정국공신(靖國功臣) 위훈삭제(僞勳削除)를 강력하게 청하다가 훈구과

인 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서 전라도 능주(綾州)로 유배되고, 이어 사사(賜死)되었다. 그의 지치주의적(至治主義的) 도학정신(道學精神)은 후세에 계승되어 이황·이이(李珣) 등 많은 후학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사림의 정신적 표상이 되었으며, 조선유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형성하였다. 선조 초에 신원(伸寃)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능주의 죽수서원(竹樹書院), 양주(楊州)의 도봉서원(道峰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정암집》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

십이황(李滉 1501~1570 연산군 7~선조 3)

조선 중기 문신·학자.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수. 본관은 진보(眞寶). 경상북도 안동(安東) 출생. 1534년(중종 29) 문과에 급제, 부정자(副正字)·박사·전직·지평 등을 거쳐 세자시강원문학·충청도암행어사 등을 지냈다. 43년 성균관사성을 지내고, 이어 단양군수(丹陽郡守)·풍기군수(豊基郡守)를 지낸 뒤 낙향하였다. 52년(명종 7)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사퇴하였다. 그 뒤 30여 차례나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대사성·참의·경연참찬관 등을 잠시 지냈을 뿐 대부분 사퇴하고 향리로 돌아가 본격적인 학문연구에 전력하여 활발한 저술활동과 강학(講學)에 힘썼다. 53년 《개정천명도(改訂天命圖)》, 54년 《여노수신논숙흥야매잠주해서(與盧守愼論夙興夜寐箴註解書)》 《사정전대보잠(思政殿大寶箴)》 《연평답문발(延平答問跋)》, 56년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57년 《계몽전의(啓蒙傳義)》, 59년 《답황중거서론백록동규집해(答黃仲舉書論白鹿洞規集解)》 《이산서원기(伊山書院記)》 등을 썼고,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편찬에 착수하였으며, 기대승(奇大升)과 사칠논변(四七論辨)을 시작하였다. 그 뒤 61년 《도산기(陶山記)》, 64년 《정암조선생행장(靜庵趙先生行狀)》 《심무체용변(心無體用辨)》, 65년 《경현록개정(景賢錄改定)》, 66년 《회재이선생행장(晦齋李先生行狀)》 《심경후론(心經後論)》, 68년(선조 1)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 《성학십도(聖學十圖)》, 69년 《답노이재의상례서(答盧伊齋議喪禮書)》, 70년 《답기명언서논심성정도(答奇明彦書論心性情圖)》 《답기명언서개치지격물설(答奇明彦書改致知格物說)》 등을 지었다. 1560년(명종 15) 강학 장소를 도산서당(陶山書堂)으로 옮긴 뒤 죽을 때까지 후진교육에 힘썼다. 그의 사상은 정이와 주희(朱熹)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학문을 비판·배척하였다. 성리학에 있어서는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가치적인 면에서 기(氣)보다 이(理)를 중시하는 주리적(主理的) 입장을 나타냈다. 그의 철학적 방법론과 이론은 거경궁리(居敬窮理)와 이기이원론으로 집약되는데, 그는 주희가 주경(主敬)으로 근본을 세우고 궁리를 통해 지식을 쌓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진덕수업(進德修業)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러한 학문적 태도는 객관적 주지주의(主知主義)정신과 통하는 것이며 그의 이기이원론적 입장은 우주생성관에 근원을 두어, 주돈이의 <태극동이생양정이생음(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 이론을 받아들이고, 태극을 이로 파악한 주희의 설에 입각하여 <이동즉기수이생(理動則氣隨而生)>이라 주장하였다. 그 뒤 여기에 체용설(體用說)을 적용하여 이가 작위성이 없다고 한 종래의 이론은 이의 체(體)의 측면이고, 용(用)의 측면에서 말하면 이 역시 작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격물설(格物說)·심성설(心性說)을 수립하여 <이가 발한다>는 주장을 고수하였으며, 이가 기에 앞서 존재한다는 이우위론적(理優位論的) 사고는 그의 사상 전반에 걸쳐 일관되었다. 사단칠정(四端七情)에 있어서도 기대승과의 논변을 통해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四端理發而氣隨之七情氣發而理乘之)>이라 하여 이기가 호발(互發)한다고 하였다. 뒤에 퇴계학과·율곡학과(栗谷學派), 주리파·주기파, 영남학과(嶺南學派)·기호학과(畿湖學派)라는 학파가 형성되면서, 그의 문인은 영남의 학풍을 이루었는데,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정구(鄭逵)·유성룡(柳成龍)·황준량(黃俊良)·이덕홍(李德弘)·박순(朴淳) 등이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문묘 및 선조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안동의 도산서원, 의령(宜寧)의 덕곡서원(德谷書院), 예천(醴泉)의 삼강서원(三江書院), 청송(靑松)의 송학서원(松鶴書院) 등 40여 곳의 서원에 주사(主祀)되었다. 시호는 문순(文純).

십정여창(鄭汝昌 1450~1504 세종 32~연산군 10)

조선 중기 문신·학자. 자는 백옥(伯勛), 호는 일두. 본관은 하동(河東). 함양(咸陽) 출생. 김굉필(金宏弼)과 함께 김종직(金宗直)의 2대 고족제자(高足弟子)이다. 성리학의 대가로 경사(經史)에 통달하였고, 체용(體用)의 학에 밝았으며, 역행실천(力行實踐)을 위한 독서를 주로 하였다. 1483년(성종 14)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유생이 되고, 90년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소격서참봉이 되었으나 사양하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그해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검열을 거쳐 시강원설서로 연산군을 보도(輔導)하였으며, 안음현감(安陰縣監)으

로 선정을 베풀었다. 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종성(鍾城)에 유배되었고, 1504년 죽었으며,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저서에는 《용학주소(庸學註疏)》 《주객문답설(主客問答說)》 《진수잡저(進修雜著)》 등이 있었으나 무오사화 때 부인에 의해 소각되었으며, 정구(鄭述)가 엮은 《일두유집》이 있으나 현재는 《문헌공실기(文獻公實紀)》 속에 그의 유집 일부가 전해질 뿐이다. 증종 때 우의정에 추증되었고, 광해군 때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나주(羅州)의 경현서원(景賢書院), 상주(尙州)의 도남서원(道南書院), 중성의 종산서원(鍾山書院), 합천(陝川)의 이연서원(伊淵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헌(文獻).

#### 十박지성 (朴知誠: 선조 6년(1573)~인조 13년 (1635))

이조 광해군때의 학자(學者), 자는 인지(仁之), 호는 잠치(潛治), 익호(諡號)는 문목(文穆), 본관은 함양(咸陽), 응립(應立)의 아들이다. 덕망이 높고 효심이 깊었다. 1609년 왕자사건(王子師傳)으로 있었으나 곧 사임(辭任)하였다. 광해군의 폐모시비(廢母是非)로 조야(朝野)가 떠들석하며 호서(湖西)의 신장에 이사(移徙)하여 문(門)을 닫고 내용(來容)을 거절하고 독서(讀書)에 전념(專念)하였다. 인조 1년 (1623)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영월 군수(郡守)등을 역임(歷任)하였다. 예(禮)에 밝았으며 아산(牙山)에서 죽었다.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추증(追贈)하고 익호(諡號)를 내렸다. 박 필주(朴弼周)가 행장(行狀)을 지어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配享)하였다. 저서(著書)로 주역건곤괘설(周易乾坤卦設)이 있다. <국조인물고, 조선환여승람(國朝人物考, 朝鮮纂輿勝覽)>

#### 10) 종교단체

서원골 마을은 서원사가 있으며, 신도수는 50여명이 되고 있고 해암 장로 교회는 신도수가 30명으로 나타났다.

원골 마을은 수암사라는 절이 있으며, 신도수는 50명이고 조계종사인 능인정사의 신도수가 10명으로 아주 적은 편이며, 서원 교회는 신도수가 40명이다.

#### 11) 공장현황

서원골 마을은 시.티.아이(주) 특수 목적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와 아산 철강 산업이 있고 원골 마을은 삼호개발로 아스콘을 만들고 동양 시멘트, 고려화학으로 PVC 바닥재 파일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力시.티.아이(주) : 서원 217. 특수목적용 기계, 허가일 96. 3. 6. 휴업

力삼호개발(주) : 서원 51. 아스콘. 허가일 94. 4. 29. 면적 29,571㎡ 종업원수 16명

力아산철강산업 : 서원 산 82 . 철구조물 . 허가일 91. 10. 21. 면적 1,956㎡. 휴업

力코리아브싱(주) : 서원 81-35. 자동차부품. 허가일 88. 5. 30. 면적3,594㎡. 휴업

力고려화학(주) : 서원 산 27. PVC바닥재, 타일. 허가일 92. 12. 30. 면적135,887㎡ 종업원수 165명

力동양시멘트 : 서원 산 58. 콘크리트 파일 .허가일 94. 12. 8. 면적 123,353㎡. 종업원수 89명

#### 12) 마을 특성

서원골마을은 산속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며, 마을앞으로 냇가 있고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으며, 쪽파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산서원터가 남아 있으며, 아직도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답다.

원골 마을은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으므로 해서 농업보다는 기타 업종이 많고 농업에는 벼농사를 위주로 하며 밭농사는 고추를 약간씩 심고 있는 실정이며,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서 넉넉함이 배어 나오는 농촌의 모습을 담고 있다.